

감리교회 세계선교정책세미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온라인 세미나

날짜 2020. 9. 24(목) 3시 업로드

방법 ▶ YouTube 유튜브에 **운서교회** 검색

주최 감리회본부선교국 ·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감리교회 세계선교정책세미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대회사



박상철 목사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회장)

일상이 흔들리고 불안을 안고 사는 COVID-19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과 예측에 혼돈이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위기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본부 선교국과 세계선교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교국과 파송교회, 선교사들이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느끼기에 이 상황을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집합 제한 명령이 시행되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넌컨택트(noncontact)시대에 우리에게 기술적 발전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또 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인식된 상황에 대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변화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환영사



오일영 목사
(감리회 선교국 총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1989년 창립된 이후 지난 31년 동안 감리회의 세계선교를 이끌며, 해마다 세계선교정책세미나를 통하여 감리회를 위한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2020년 세계선교정책세미나의 주제는 “위기관리-이론과 실천”입니다. 선교국과 세계선교협의회가 관심하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동역자 여러분, 이 위기는 한국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 문제요 선교지마다 겪고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다중모임이 금지되며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역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들도 동일한 위기를 겪으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가중되면서 선교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실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으로의 선교방향과 비전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한성교수님의 “일상화되는 위기”, 전철영선교사님의 “GMS-위기관리 대응과 실제” 그리고 조동욱선교사님의 “선교현장 선교사 위기-막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라는 강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위기가 안고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새롭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차례

▣ 주제강의

1. “일상화되는 위기” ----- pp.6-12
발표자 : 김한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

▣ 사례발표

2. “선교현장 선교사 위기 - 막을것인가, 이길 것인가” ----- pp.13-22
발표자 : 조동욱 선교사(네팔)
3. “GMS - 위기관리 대응과 실제 ” ----- pp.23-31
발표자 : 전철영 선교사(GMS 선교사무총장)



2020년도

감리교회
세계선교정책세미나
강의자료

☀ 김한성 교수



-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 교수
- 현) 네팔선교연구원 연구교수로 봉사
- 캐나다 Prairie Graduate School(PBC)에서 M.A. in ICS with TESOL Concentration 전공
- 미국 Biola University (Cook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에서 D. Miss.를 취득
- 국제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서남 아세아에서 사역

『한국 교회와 네팔 선교』(CLC, 2017), 『선하고 거룩한 동역』 (조이선교회, 2020),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예영커뮤니케이션, 2020) 등을 저술했고,
『기도 전도』, 『타문화권 교회 개척』, 『모금의 영성』, 『타문화권 교육 선교』 등을 번역

일상화되는 위기

김한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1.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제 3기에 접어들고 있다.

제 1기: 평온한 일상

위기를 위기로 모르고 살았던 시기

제 2기: 예기치 못 하는 위기에 노출

김선일, 이라크 피랍과 피살 (2004년 5월 31일, 6월 22일)

분당샘물교회, 아프카니스탄 피랍과 일부 피살 (2007년 7월 19일~8월 30일)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이집트-이스라엘 국경 (2014년 2월 17일)

제 3기: 일상화되는 위기 속에서 살기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비자발적 철수

코로나19

2.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적 특징!

대중 요법 - 개별 문제 대응/개별적 문제 해결, 정서/심리 이슈들

대규모 위기 대응 - 속수무책, 반복

3. 왜 그랬을까?

1) 자원의 부족 - 인적, 재정적, 전문지식

2) 개교회주의 토양에서 개인주의 선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II. 가까운 미래: 위기의 상시화와 대규모화

과거의 위기는 소수에게 일어나는 것이었고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 다수를 이루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수가 적었고, 선교사들이 젊었기 때문이었다.

1. 외부적 원인: 선교 환경의 변화
 - a. 정치적 안정
 - b. 경제 발전
 - c. 정체성 추구 - 전통 종교와 문화를 사용해서
2. 내부적 원인: p한국 선교의 문제
 - a. 선교사의 수가 많고, 선교사의 고령화
 - b. 대응 자원에 과부하
3. 예측되는 위기
 - a. 위중한 건강 관련 위기
개별적이거나, 자주 발생
 - b. 비자발적 철수 위기
(과거) 중앙아, 북아프리카, (최근)중국, 인도, (수년 내) ??
 - c. 선교사 은퇴
2019년 12월 현재, 28,039명의 선교사의 15퍼센트
총 18,803명 중 60대 이상이 4446명 선교사 25퍼센트
KMC 소속 선교사 중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은퇴할 선교사의 수는?

III. 선교사의 위기가 국내 거주 목회자, 성도와 어떻게 다른가?

1. 어디에나 있는 위기의 가능성
 - a. 선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대부분은 국내 거주 목회자에게도 발생 가능
 - b. 일부 타문화권 선교사가 더 취약한 위기도 존재
 - c. 국내 거주 목회자와 성도가 더 취약한 위기도 존재
2. 가능성이 더 높고, 강도는 더 세고
 - a. 외국인이기때 - 현지인들은 안다
 - b. 치안, 안전망, 기반 시설과 조직이 비교적 취약해서
 - c.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 옴
3. 대응 자원은 더 적고, 더 약하고
 - a. 위기의 수준이 클수록,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미비
 - b. 대응 자원이 흔히 한국에 있고
친지, 친구, 보험 등
 - c. 의사소통의 시간이 더 걸리고

IV. 위기 인식에 대한 두 가지 접근

1. 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 A) 전통적 개념의 위기 유형들
위기를 “일시적이며 정신적 불확실성과 평형감의 상실 등이 뒤따르게” 되거나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비참한 결과들을 초래하여 기존하는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을 마비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해외선교회, 1997:17-18).

- a. 지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온 위기
- b.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온 위기
- c. 적대적인 이유로부터 제기된 위기
- d.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위기

B) 새로운 분류법

a. 개인적 위기들

1) 사역의 위기

a) 정체성 위기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의욕 상실, 우울증 등

b) 선교 정책, 전략의 위기

여러 자원의 부족, 선교지의 급변으로 부조화,

c) 타문화 사역 상황의 위기

문화적 차이로 사역 중에 오해 발생과 부정적 영향

2) 생활의 위기

a) 가족의 위기

자녀의 건강, 진학, 취업, 결혼, 탈선

배우자의 건강

b) 가족 관계의 위기

자녀의 반항, 소통 부족

배우자와 불화, 불륜

c) 타문화 생활의 위기

선교지에서 사건, 사고

선교지 생활에 대한 실증

3) 건강의 위기

a) 육신의 건강

b) 영혼의 건강

c) 마음의 건강

d) 안전

b. 관계적 위기들

1) 파송/후원 교회/성도와의 관계

파송/후원교회의 담임 목회자 교체, 의사소통의 오해/부재

재정 후원 중단

가족, 친지, 친구의 죽음

2) 동료와의 관계

선임 선교사의 “갑질”

후임 선교사의 “개인주의”

선교지의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

3) 소속 단체와의 관계

기대하는 만큼 지원이 없고

조직의 상명하복 의사소통

소통의 전문가들의 소통 문제

4) 현지인과의 관계

기대가 큰 현지인들

기대가 큰 선교사들

소통 부족

언어/문화의 차이

적대세력, 거짓 고발,

동역자의 배신, 회심자의 변심

c. 외부적 위기들

1) 선교지 정치 상황

쿠데타, 정권 변화 - 선교사,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일어날 때
중국 시진핑, 인도 모디 정부,
홍콩? 캄보디아? 네팔?

2) 선교지 경제 상황

경제 성장 - 현지인 인건비 상승, 선교사 생활비 지출 증가
(경제 침체 - 도움 필요한 사람 증가)

3) 선교 재정 수입 감소

예고 없는 후원 중단 - 재정 수입과 심리적 충격
신규 후원 없이 기존 후원 중단 - 물가 상승과 반대로 수입 감소
환율 급변 (IMF 사태) - 물가 차이에 기초한 구매력 우위

4) 자연 재해

지진 - 네팔

태풍 - 필리핀

쓰나미 -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홍수 -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2. 위기의 규모별로 구분

(비유적으로)

a. 감기 몸살 수준

- 일시적으로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으나 약간의 주의와 노력으로 대처 가능
- b. 맹장염 수준
 - 갑작스럽고 큰 고통,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집중적인 대응으로 해결 가능
- c. 당뇨병 수준
 - 이전과는 다른 생활과 사역,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생활과 사역의 대폭 축소, 중단 등의 결과가 올 수 있음
- d.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질병 수준
 - 선교지 이동, 사역 변화, 중단, 철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V. 위기 대응 방향

1. 기존 매뉴얼 평가
 - a.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배경, 과정, 시기 확인
 - b. 2020년 시점에서 현실성 평가
 - c. 매뉴얼 점검의 매뉴얼화 (시기와 평가 요소)
2. 선교사 강화
 - a. 위기 점검표 정기 제작과 작성
 - b. 제시된 재정 후원금과 실제 모금액의 2020년 현실화
 - c. 선교사의 시간과 재정 사용에 위기 대응 항목 추가
3. 다층화
 - a. 선교사, 국가, 지역, 선교국 등으로 다층적 대응 구조 수립
 - b. 위기 수준별 대응 단계 지정
 - (예를 들면)
 - 1) 감기 몸살 수준 - 선교사
 - 2) 맹장염 수준 - 지역
 - 3) 당뇨병 수준 - 선교사, 국가
 - 4)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질병 수준 - 선교사, 교단 선교국
 - c.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4. 대응 조직 강화
 - a. 군대 조직 편제
 - 1000-3000명의 연대 규모 안에 (본부, 수송, 의무, 통신, 수색 지원) 직할대 3-4대대 전투 대대를 위해 1개 대대급 지원 규모
 - b. 담당 인력 보강

VI. 나가는 말

1. 연구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가용 자원에 대한 평가

2. 순환 구조

목표 -> 계획 -> 실행 -> 평가

일관된 내용으로 연결

3. 상생의 협력

멤버는 열사봉공의 정신으로

조직은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으로

참고 문헌

김경식. “선교사의 위기관리.” 『선교와 현장』 제6권(2001), 109-116.

조은식. “대북선교 위기관리 고찰.” 『선교신학』 제48집(2017), 295-323.

로라 매 가드너.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 백인숙, 송헌복 역. 서울: 아바서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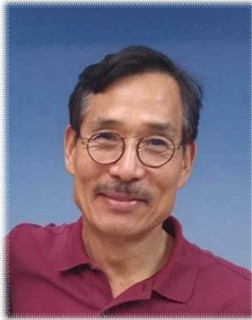
문상철 편. 『선교사 멤버케어』 (현대선교 17).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14.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서울: CLC, 2004.

한국해외선교회 편저. 『선교사의 위기관리』.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7.

(Crisis Consulting International에서 제작한 The Contingency Preparation Seminar Manual에서 선별하여 번역 출판했음)

☼ 조동욱 선교사



- 1997년 10월 인도 선교사로 파송. 2018년 12월 네팔(Nepal)로 선교 재배치
- The Founder/the Principal,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 India. (Feb. 2003-Present)
- The Director of "Himalaya Highway Project" (Oct. 2001-Present)
- The Initiator of "Trans Himalaya Network, International" (Oct, 2013- Present)
- Doctor of the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SA
- Ph.D (Candi)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USA.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선교사 위기- 막을 것이냐 이길 것이냐?

David Wook. Cho

네팔 선교사

1. 서론 - 이상한 시대, 이상한 위기들 The Strange Crisis in the Strange world.

위기 사례- 2020년 2월 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60대 후반 부부 선교사가 코로나 걸렸다. 한국에서 감염 2월 말 네팔로 입국했다. 네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었다. 두 칸 임대 주택에서 부부 선교사는 두 달을 끙끙댔다. 부부 선교사는 땀 방울 사용하며 식사도 따로 가졌다. 두 사람은 유서를 써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이겨냈다. 병이 들었을 때나 회복했을 때 주변 선교사에 알리지 못했다. 선교사들은 이동 통제로 교통 불통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사려야 했다.

2. 위기란 무엇인가?

* 위기의 특성- 위기는 오노라 가노라 알리지 않는다. 갑자기 찾아 온다. 강력하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 위기 반동 현상으로 충격, 불안, 좌절, 죄책감, 수치심, 혼돈, 현실도피 등을 나타낸다.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이지 위기라 할 수 없다. 위기란 갑자기 닥쳐온 위험 상황으로서 피하기 보다 어떻게 극복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1) 위기의 개념 (A Concept of Crisis)

가).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위기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그 후유증 즉 사건 이후의 상황이 좋아 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결정적 상황을 말한다. 예) 집안의 기둥 같은 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사라진 건 사건이요. 그 이후 결과를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고 처리해야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을 위기라 한다.

나) 경제, 정치 또는 국제 관계에서 위기란 어떤 상황 발생 후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아지거나 위험으로 빠지는 상태를 위기Crisis라 한다. 코로나 이후 뭔가 결정해야할 정부, 선교사, 선교 관리자들에게 지금이 위기이다.

다.) 의학적인 상황에서 위기란 어떤 질병이 들어온 이후의 상태가 생존으로 돌아서거나 사망으로 빠져 들어 가느냐를 결정짓는 상황을 위기Crisis라 한다.

* 위기 관리를 배우는 목적은 위기라는 걸림돌을 넘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선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위기라는 개념과는 모순된다. 위기는 이기거나 피할 수 있는게 아니다. 위기는 직면(Confrontation)하고 완화하고(Absorbs the Crisis) 그 위기를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The Crisis to the Opportunity)하는 과정이다.

3. 위기의 범주 - 어떤 위기들이 있나?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면에 담긴 위기의 범주를 구분한다. 다수가 공동으로 당할 부분만 다룬다. 개인적인 위기(건강, 사고, 관계, 사역 등)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범주1) 전대미문의 수상한 위기들- 죄악의 찌꺼기가 축적된 결과로 인한 위기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이전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위기로 여기던 선교사 개인의 신체적 위기, 심리 및 정신적 위기 또는 선교지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역적 위기 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은 그 형태, 피해, 충격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우주 여행을 할 정도로 과학 기술이 세계 강국이란 미국에서 하루 수 천명이 죽어간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렸다. 인간의 지식과 합리성을 조롱하는 악마의 웃음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찌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죄의 축적물의 결과”로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은 욕망이란 열차에 오른 인간이 그 욕망의 기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결과이다. 좀 과속한다고 느꼈을 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정지 불가한 상태, 통제 불가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인간의 욕망의 결과들이 쌓여 자연 질서를 파손, 기후 온난화를 불러왔고 이것은 생태계 파괴로 생태계의 변화는 이상한 괴물 같은(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냄새도 없는) 바이러스 위기를 만들어 냈다.

오늘날의 바이러스는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잡힌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축적된 결과로 만들어진 위기는 또 다른 질병, 다른 형태의 재앙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 온다. 왜? 생태계 파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의 걸잡을 수 없는 위기가 막무가내로 쳐들어올 것이다. 연속적 위기는 자연 생태계 파괴의 Tipping Point 를 넘었기 때문이다. Tipping point란 한 번 특정 수준을 넘으면(생태계 파괴 회복 불능 상태 지남) 유사한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나는 이것을 와르르 포인트라고 부른다. 위기가 어떤 부분까지는 통제가 가능한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와르르 하고 몰려온다.

와르르 포인트는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신자가 기도, 성경 묵상, 사랑 등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서서히 마음에 안정, 영적 확신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 일정 수준을 지나면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지점을 지나면 갑자기 세상 환희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기도에 응답된다.

일상에서 매일 기적같은 일들이 생긴다. Spiritual Tipping Point라 할 수 있다. 우리시대는 재난과 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는 와르르 포인트를 넘어섰다. 대비책으로 영적인 와르르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Spiritual synergy를 쌓아야 한다. 이걸 극복 능력이 된다.

* “죄악의 찌꺼기가 축적된 결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위기”의 특징.

반드시 다시 온다. 누구에게나 온다. 정체 불명의 후속 결과들이 밀려올 것이다. 차후로 다가올 위기 종류로는 1) 위기에 대한 인지 혼돈(재난이나 위기이나 일회적이나 장기적이나) 2)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한 대책 잡기 혼돈(전통적 선교/새시대 전향적 선교 등) 3) 위기 대처에 따른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위기 등이 예상된다.(몽땅 구원, 몽땅 실패, 결과 예측?)

(범주2) 문화적 신민족주의로 인한 위기들

위 사례자의 경우 네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다. 전염병 초기 아직 네팔인 아무도 확진자가 없었다. 외국인 확진자도 없었다. 네팔은 정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이다. 2019년 8월 새 종교법이 발효, 기존 종교와 문화를 손상시키면 감옥 추방된다. 개종은 물론 설교 언어, 문자, 그리고 감정으로 기존 종교와 문화를 위협하면 현지인도 선교사도 감옥, 벌금, 추방된다. 실제 사례 있었다. 이러한 신민족주의 경향은 네팔 주변의 아시아에는 인도, 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중동의 무슬림, 러시아와 유럽 남아프리카 등 백인우월주의 또는 자국인 우선 주의 등의 정치적 경향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위 당사자도 인도에서 비자발적 출국한 부부 선교사였다.

* 선교지의 문화적 신민족주의로 인한 위기의 특징

가) 넓게 발생한다. 그리고 오래 동안 발생할 것이다. 문화적 신민족주의 경향은 단일 특정 국가의 경향이 아니라 자기 국가 정체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유사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인 충격으로 국가 폐쇄 상황일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복음이 필요한 제삼국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인도의 경우 카스트라는 신분 차별과 기독교의 평등 사상은 사회적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구성 사다리를 무능화 시킨다. 기독교는 국가 구성 기초를 흔드는 반사회적 단체로 본다. 코로나 이후 각 국가는 안전 위주의 행정을 적용, 따라서 선교사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와 진다.

나) 선교 형태의 전략적 변화를 요구한다. 직접적 선교 불가, 선교 영역의 제한, 선교사 비자 문제, 장기 보다는 단기 사역, 현지인 중심의 창의적 사역을 필요로 한다.

다) 이러한 문화적 신민족주의 경향은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교사 개인의 문제가 사역의 중단으로 연속성이 끊어진다. 선교사의 비자발적 출국 상황을 만들어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모국으로 모여 들게 된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No Welcome 모국에서 No Welcome 이 된다.(인도 중국의 경우 수 백 명 비자발적 출국

자들 발생했다) 선교사들이 모국에서 선교사 방랑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는 한국 교회 전체, 교단 선교 기관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며 선교 전략을 수정, 국내 이주민 사역, 전문적 사역, 선교사들 국내 거주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범주3) 선교지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지역적 위기. (The Territorial Crisis)

위 사례의 경우 네팔 현지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병원의 수준이 낮아 병을 악화할 우려 때문이었다. 각 선교지마다 그 지역의 독특한 상황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의 격차로 말미암아 현지 적응이 안되는 경우들이다. 생활의 기본 요소가 충격적일 수 있다. 도로, 버스, 물- 전기, 행정 체계,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이다. 예) 네팔 도로(청정지역 속의 먼지), 물(식수 화장실 빨래), 교통, 전기,

*네팔 -히말라야-티벳 등은 고산 지대로 산소 농도가 낮다. 장기적인 노출로 인한 심장병, 두통 등 토속병이 생긴다. 설산 지역이라 강한 빛으로 인한 눈병들, 인도 중동 등에서 먼지로 인한 식도 및 호흡기관 질병 등이 있다. 히말라야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지역의 어두운 영적 세력들의 간섭이나 공격을 받아 정신적 영적 질환으로 고통 당하는 경우가 많다.

* 지역특성에 의한 위기의 특성

선교지 현지 문화 또는 현지의 독특한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는 선교 초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특성에 따라 위기 상황이 장기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선교지 지리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위기는 상시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선교사에게 지속적인 억압을 줌으로 선교지 초기 적응 즉 Mission Bonding 에 결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선교사 개인의 신체 건강, 선교사의 정신 건강, 가족 또는 그 지역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적용된다. (Bonding 오리가 닭을 엄마로 따른다. 초기 Bonding 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교 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선교지 특정 지리 또는 특정 문화에 의한 위기 발생은 선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공통 요인으로 작용된다.

(범주 4). 선교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위기

위 사례자의 경우 네팔 병원에도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늘 길도 막혀 버렸다. 전염병으로 공항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2020년 3월 21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국경 및 공항 봉쇄 국내 이동 금지) 내란이나 쿠데타, 정치적 위기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의 위기들의 특성- 개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이다. 이러한 범주의 위기는 선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선교사 전체 또는 선교 기관 전체가 피해를 당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범주의 위기 가능성이 높다.

(범주 5). 심리적 정신적인 위기

위 사례자의 경우 두 달을 좁은 방에서 더구나 본인의 생명의 명운을 걸고 버텨내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을 당했을까 그려보라. 유서를 작성하고 기도했다. 심리적 충격

이 크다. 네팔 2015년 대지진으로 8857명이 목숨을 잃었다. 몇 개월 동안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강박감 충격 등에 의한 Trauma를 겪었다. 생필품 품귀, 연속되는 여진들(2015년 대지진 459차례 여진)로 네팔 선교사들이 재해의 위기에 대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은 2011년도 인도 Sikkim 지진, 2015년 네팔 두 지진을 경험했다. 앉아 있던 의자가 움직이고 손에 잡은 물건의 흔들림에도 지진인가 하며 우울증이나 심약, 영적 간섭과 구별되어야 한다. 아직도 투병중인 이들이 다수이다.

(범주6) 복합적 위기 상황에 따라 선교사 정체성 및 선교 사역 정체성의 위기.

앞서 사례자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지금 당장과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라는 염려들이 많다

- 1) 자기 사역에 대한 개인적 염려 -생존. 선교비. 재정착 등.
- 2) 사역 활동에 대한 혼돈- 전통적 선교? 아니면 어떤 선교? 선교지 상황과 선교사 파송한 모국의 상황에 따른 사역 형태 혼돈- 코로나 후기의 신임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
- 3) 선교사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 - 선교 활동 방향을 찾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선교사 정체성 혼돈에 대한 위기를 말한다.
- 4) 선교 개념 또는 선교 전략에 대한 혼돈 - '본질을 찾아야 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이전 사역이 본질적 사역이냐? 예수와 선교사의 일체 경험으로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한다. 그리고 이를 선교지 문화와 상황에 얼마나 깊이 있는 연결 시키는 밀착 선교가 요구된다.(missionary oriented vs Local Oriented, Output vs outcome, leadership vs consultation, One side vs Mutual.)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따라 혼돈 요소는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선교 개념. 선교 전략. 선교사의 자기 정체성, 선교사의 역할, 그리고 파송 교회와 소속 선교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계의 혼돈 등으로 인한 내부적 위기가 우리 안에서 증폭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독교 선교의 본질과 변화 시대에 적 용할 선교 전략과 실행 정책 방향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정함으로 혼돈을 줄여야 한다.

3. 선교지의 선교사 위기 대처 원리

1) 마음의 준비

위기 관리로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Confrontation)하고 완화(Absorbing)하고 발전의 기회로 변환(Transformation)시킬 마음의 준비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선교사는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들이다.(1벧전 4:12.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고난의 결과를 좋게 기다려야(약1:2-7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은 연단을, 연단은 완전함을) 심리적 무장 또는 평시에 위기관리에 대한 사전 이해나 기본적인 방식을 습득해 둔다.(주님을 모시는 영적 합일 경험을 통해 초월적 권세 획득)

정신 빼고 지내다 한 대 얻어맞으면 충격이 크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있다가 얻어 맞으면 덜 아프다.

예) 신사와 권투 선수의 차이. 예) 초임 선교사와 경력 선교사. 위기 수용성을 키우라.

2) 선교지 현장에서 국가별 선교 위기.

가) 선교지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위기 관리 원칙을 정해 두어야한다. 예컨대 *선교 현장의 위기는 현지 선교사 중심으로 처리한다. 선교 책임 기관은 선교지 위기를 감소시키는 선교 환경 조성- 적절한 선교 전략 개발 또는 위기를 감내할 건 강한 선교사 훈련, 선교사의 대량 국내 유입에 대한 전략적 대비, 선교지와 선교 관리 기관 사이의 전략적 협력 등으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둔다.

나) 각 선교지의 특성을 살린 지역 전문성을 고려한 현지 중심적 선교 위기 메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선교지 국가별 팀에게 훈련시킨다. 중앙 통제 개념이 약한 감리교 선교사들의 경우 각개 전투가 특징이다. 위기 상황에 대하여 방임 상태이다. 각 선교지 현장을 분석하여 위기 발생시 이를 수용, 완화,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담은 메뉴얼을 만들도록 선교 관리 기관에서 지도 격려 또는 후원, 확인한다. 메뉴얼 작성 기초 사항을 각 선교지의 담당자들에게 제공한다. 각 지역별 메뉴얼은 관련 지역과 경험을 나누게 한다. 선교 현장과 선교국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각 선교지/국가의 선교지의 위기 담당자 또는 팀 구성

위기를 수용, 완화, 처리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전문화된 현지 위기 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숙지 시킨다. 해당 선교지의 위기 예측이 가능한 선교사가 주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아닌 각 위기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모여 팀으로 운영한다. 메뉴얼 내용은 주로 선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을 예측하고 최악의 경우를 사전 가림하여 대비하게 한다. 교단 선교사만으로 위기 메뉴얼 작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 내의 초교파적 협동으로 메뉴얼 작성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예) 네팔 - 고산지 사역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위기들 대비- 고산병, 설산 방문시, 겨울 눈사태 여름 산사태, 지진 등으로 인한 고립 또는 실종- 각 상황에 적절한 사전 대비, 위기 관리 책임자 선정, 연락망, 교통편, 비상물품, 대피 장소 사전 선정.

예) 2015년 네팔 지진 때에 인도 실리구리 지진 대비 팀- 주변에 건물이 없고 주차 또는 텐트 설치 가능한 넓은 공간. 우물 있는 곳 어디냐? 열방신학대학 캠퍼스.

예) 브라질 아마존 선교- 수인성 전염병, 독충, 홍수 대비. 고립 또는 격고지, 대피소, 공급 물품 및 공급 방법. 사역자간의 네트워크. 선교지 지역 대표, 대사관. 현지 정부.

예) 중동지역- 지역 문화에서 유의하여야 할 선교적 고려.(예- 여성 수세자의 경우 여성 수세자들만을 위한 세례, 여성 사역자에 의한 세례) 정치 경향의 흐름 파악. 불안정. 피납 또는 추방 사태 대비. 인질 무관용 원칙 등. 현장 중심 메뉴얼 활용한다.

3) 선교 관리 기관에 의한 위기 관리(제안)

- * 각 국가별 선교사회에 위기 관리 책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에게 지역 위기 메뉴얼 팀을 만들게 한 후 정기 비정기적으로 교단 본부와 연결된 직간접 훈련을 하게 한다. 선교국은 현지화된 위기 관리 메뉴얼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하며 그 내용을 본부에서 통합한다. 이에 앞서 선교 기관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해 두어야 한다.
- * 선교사 파송 전에 감리교 본부나 파송 기관에서 위기 관리 세부 지침을 인지하도록 의무화 시킨다. 선교사 파송 전에- 선교 계약서 작성 등- 소속 교회와 파송 단체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한계와 책임 등을 명시적으로 상호 인지 인식한다.

4) 전략적 - 통전적 위기 대비

- *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교 개념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창의적 선교 전략 또는 정책을 세운다. 건강한 선교가 선교 위기를 막거나 이겨낼 수 있는 예비적 방법이다. 불가촉 시대의 선교는 다양한 위기를 야기할 시대적 상황을 맞았다.(선교지의 제한적 외국인 허용, 위험 부담의 대상이 되는 선교사, 대량 선교사 모국 방랑자, 선교사 국제 미아 상황, 새 선교 상황 부적응 반응, 파송교회와 선교사 간의 선교 이해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위기)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위기 극복 요소로 본인은 복음의 능력, 영적 거듭난 체험, 선교지의 사회와 문화를 용해한 그릇에 담아 복음을 전해주는 통전적 선교 위에 사도적인 삶을 사는 성숙한 선교사를 세우는 것을 전략적 위기 극복의 요소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관리 담당자와 현지의 선교사가 동시에 시대에 대한 전향적 이해와 미래를 대비하는 예언자적이며 사도적 권능을 갖추는 것이다. 불확실성 시대를 이끌어 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을 세움이 위기 관리의 핵심 요소라 본다.

- * 선교 행정 기관의 위기 관리의 전략적 대응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현장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게 한다. 이것은 본국 선교 기관이 담당 못한다. 모국의 선교 기관은 선교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선교사 세우기, 현지 위기 발생시 선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능력 키우기, 관리를 위해 선교 국가별 또는 선교 연관 지역별 위기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상호 연결, 그리고 국내에서는 교단별 또는 선교 기관별로 위기 관리 정보 및 기술을 나누며 선교사의 대량 모국 귀국 상황, 체류 상황 그리고 장기적인 선교사 수급 조정 등이 전략적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 본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비는 현지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 * 새 시대의 선교 사역에 고려되어야 할 선교 실행 원리로 4 M 원리를 제안한다. Micro mission, Mobile mission, Mutual mission, and Merging mission. 소규모 선교, 이동성 선교, 상호 유익적 선교, 그리고 융합적 선교 등이다.
- * 전략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위기 시대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 전인적인 성격, 강한 영성을 지닌 건강한 선교사 그리고 선교 전문성을 지닌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위기 관리에 있어 선제적 관리이자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즉 통전적이며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세움(The Identity of missionary to the ages who has the Apostolic role for holistic mission.) 건강한 선교와 위기 관리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5) 선교사 개인의 영적 무장을 통한 위기 대처

위기를 대면하고 극복할 가장 강력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사 개인 사이의 영적 합일 경험을 통해 초월적 영적 권능을 덧입는 것이다.(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선교사의 주님과의 개인적 영적 합일 경험을 통해 초월적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함으로 위기를 수용, 완화, 극복하는 힘을 축적하고 활용한다.

* 영적 초월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과 위기 관리 사이의 특징.

첫째 초월적 능력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직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초월적 능력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한꺼번에 대응할 힘을 준다. 예컨대 “위기로 인한 끝없는 두려움과 요동하는 불안전 감정과 현실”- 즉 생명 생존에 대한 불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영적 무장은 주 안에 보장된 생명 주권, 협력하여 선한 결과에 대한 확신, 어디든 함께 동행 확신, 나를 위한 예수의 보호에 확신을 준다. 그리고 위기는 “불들림”(Obsession)을 야기한다. 이에 대하여 영적 권능은 “해방의 경험”(Deliverance)을 제공한다. 즉 공포, 소유나 지위, 자녀, 자만심, 두려움, 트라우마 등의 불들림에 대하여 “소유 주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구하라”고 내적인 힘을 준다. 영적 권능은 실제 위기, 영적 위기, 관계 위기 등을 동시에 이기게 한다.

둘째 초월적 능력은 위기 상황 때에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분별력을 공급한다.

위기 상황의 특징은 갑작스럽다. 부차적인 위기를 생성시킨다. 대부분의 위기는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 중요함과 덜 중요함, 필요와 불필요함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후속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때 영적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붙들 것 것과 놓아야 할 것, 거기 있어야 할 것과 돌아설 것 등을 분별하게 한다. 위기 때에 건강 손상, 불신 불화, 관계 분열, 그리고 사역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복잡한 상황을 선명하게 하는 분별을 통해 혼돈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례_ 배반자를 어찌할까?)

셋째 초월적 능력은 물리적 위기 또는 가시적인 현재적 위기 뿐만 아니라 또는 다가오지 않은 위기를 방어하는 방어적 대처 능력을 공급한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방어적 역할을 한다. 초월적 능력의 장점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것이다. (기도 중에 화재 예방, 부탄 산사태 the Intercessory protective Pray.)

넷째 영적 권능을 갖추는 일은 비가시적이나 위기 관련하여 가장 강한 수단이다. 영적 권능을 확보하는 과정은 장기적이며 평생에 이어지지만 그 힘과 결과는 삶의 전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위기의 때에는 포괄적, 총체적 회복을 가능케 한다. 영적 충만 상태를 획득한 가운데 위기를 맞으면 위기를 기회로(the Crisis to Opportunity), 충격적인 위기 상황을 중화시키며(To mitigate the critical Crisis) 위기 이후의 상황을 긍정적 결과로 변환시키는

힘이 있다.(To transform the crisis to the positive consequence) 그리스도와 선교사 개인과의 연합 체험은 위기 관리 및 극복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로 본다.

사례) 1 위기- 외로움 2 위기- 배반과 사고 3 위기- 비자발적 출국, 선교 재산 몰수 위협

5. 결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위기의 성격과 범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대비한다. 위기는 선교사 개인, 선교 사역, 그리고 책임 기관 등에 타격을 준다. 동시에 이들이 선교 위기 극복의 주체이기도하다. 선교지 위기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한 원칙은 첫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직면해야 한다. 둘째 위기는 본인 또는 현지 선교사들이 직면하고 스스로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상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며 강한 내면적 무장으로 대비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개인은 영적 무장을, 실질적 위기 관리는 선교사 개인 또는 동료 선교사 등 현장에서 처리한다. 선교 행정 관련자들의 시대를 통찰하는 전략적 선교 방향 제시와 건강한 선교사 세우기,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 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 유지함으로 위기 관리를 유지한다.

외부적인 선교 양태로 볼 때 이전은 전통적 선교 형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선교사나 선교 기관 책임자들은 상호간에 시대 통찰과 그에 따른 섬세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략적 시대 예측과 현지 전문화된 강한 선교사를 세우고 현지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교지 위기 관리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다.

☀ 전철영 선교사



- 인천 미전도종족 운동본부 상임총무(1994 - 1996)
- GMS 필리핀 선교사(1997.03 - 2006. 09)
- 현) GMS 선교사무총장
- 현) 카이로스 코리아 National Coordinator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 M),
그레이스 신학대학원(Dr. Missiology, USA)

코로나19 이후 동일한 위기 상황 시 준비방안

- GMS 위기관리 대응과 실제 -

전철영 선교사¹⁾
(GMS 선교사무총장)

I. 들어가면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와 위협에 빠져 있다. 금번 코로나 질병의 상황은 그간 의학의 진보와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를 확인하고, 퇴치를 이룰 것이라고 보았던 WHO의 예측을 무너뜨렸다.²⁾ 오히려 사람들은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 감염속도에 비해 백신개발이나 치료법이 현저히 늦어지는 것과 치사율이 비례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코로나가 부른 인명피해, 질병의 고통, 경제적 피해는 재앙 그 이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변종의 인플루엔자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원인과 치료에 대응을 하기도 전에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은 한국교회와 선교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배중단 및 모임제한 등으로 비대면(untact)시대를 열게 했으며,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선교현장도 사역이나 모임제한으로 인해 선교사역의 중단이라는 위기에 빠졌다. 이것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고편을 본 것과 같이 향후 어떤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늠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염병 재난과 같은 유사한 일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기에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삼아야 하며 향후 이러한 재난이 반복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야 한다.

1) GMS 선교사무총장, Kairos Korea National Coordinator, 선교학 박사(Grace Theological Seminary in IN, USA)

2) 최근에는 이미 치료제가 개발된 말라리아 열병도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뎅기열병도 지난 50년 동안 30배나 증가하였고, 지금도 매년 4억 이상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의 염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II. 위기예방과 대응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선교현장은 선교사 개인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위기, 가정적 위기, 선교사 상호 관계의 위기, 사역적 위기, 긴급 재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GMS의 경우 지난 1979년부터 발생한 외면적으로 밝혀진 선교사들의 위기는 수백 건이 넘었다. 사례가 많은 사안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질병, 추방, 안전사고, 정국불안, 자연재해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위기 외에도 밝혀지지 않는 내면적인 위기인 선교사들 간의 관계적 위기나 가정적 위기, 정신적 위기 등, 보이지 않은 부분은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위기 사안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건강위기와 추방위기가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열대지역이나 위생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질환종류로는 중증질환(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체적 위기관리에 대해 방안은 '위기 요인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사전에 '위기를 예측과 예방'을 하는 것, 어떤 위기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 지역에서 선교사의 추방과 입국 거부 수가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추방)들의 재배치 방안 역시 위기사례에 대한 대응이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결단, 새로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정탐, 파송교회와의 협의, 그리고 그들을 받을 현지 선교부들의 수용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본부는 추방당한 선교사들에 대한 돌봄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파송교회와 선교현장과의 소통을 해 주어서 전략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율적인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III. GMS 코로나19 대응상황

금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올바르게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³⁾ GMS는 한국에 첫 감염 사례자가 발생한 이후에 1월 31일 전체 선교사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였다.⁴⁾ 이후 9차에 걸쳐서 선교사들에게 예방과 대처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지난 4월 1일 정부가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 의

3) 한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한 초기 정책 대응, 대규모 진단과 접촉경로추적을 채택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4) 총회세계선교회(GMS)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공지를 보내 감염예방에 대해 적절한 대응(증상, 예방수칙, 대처방법)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필요시 자진 철수, 선교현장의 행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자진 철수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교사들이 위기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무 격리기간을 선포한 날에 GMS 코비드19 대책 상황실을 개설하였다. 대책상황실에는 상황 분석, 숙소케어, 행정과 재정, 물품운송, 일반케어 등에 담당자를 두어 대응을 하였다. 현장 선교사들에게는 4월부터 1차는 전체 선교사 가정(약 1500가정)에게 10만원씩, 5월, 6월에는 선교비 대비 하위 30% 대상의 선교사들에게 두 달간 1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는 마스크 공급과 필요한 생필품 긴급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귀국하는 선교사 가정 모두에게 6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우편배달로 전달하였고, 자가 격리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14일 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7월에는 선교사 가정 위로회, 독신 여선교사 위로회, 선교사 계속교육(카이로스, 영상 미디어), MK 격려회 등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책상황실은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코비드19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교사/MK들이 귀국한 수는 전체 선교사/MK 5000여명 가운데 75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예상보다 많은 수가 갑자기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을 잘하고 있었던 것은 신속한 대응이었다. 본부가 국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신속하게 대책상황실을 마련하여 교단의 총회와 노회, 교회들에게 호소하여, 재정과 숙소, 물품들을 협력 받은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계나 방송계에서 쓰는 골든타임⁵⁾이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것인가, 본부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IV. 코비드19 이후 준비방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팬데믹(Pandemic)이나, 에피데믹(Epidemic), 엔데믹(Endemic)등이 발생할 것이다.⁶⁾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한 위기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선교본부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위기상황에 직면한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의 지원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⁷⁾ GMS는 14개 지역선교부를 중심으로 102개국의 지부에 이러한 준비를 위해 위기관리 팀을 구성시키고, 본부에서 위기관리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지침서를 만들어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위기관

5) 골든타임이란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방송계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도 중요한 시간대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6) 팬데믹(Pandemic)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에피데믹(Epidemic)은 특정지역에 비교적 넓게 지역에 유행, 엔데믹(Endemic)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우리는 금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염병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황파악과 인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이 필요함을 몸소 필요함을 느꼈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의 정직성 등 개인의 대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리 훈련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 안에 위기관리 팀을 만들어 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본부와 파송교회, 선교현장이 위기의 다면적인 여파와 역동성, 역기능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이다.⁸⁾

1. 실행지침대안 마련

실행지침서에는 멤버케어의 핵심가치나 철학과 위기관리 정책, 비상계획과 실행지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실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활동들을 미리 정해 둔 행동지침이다. 비상계획서는 위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나 잘못된 함정을 피하고,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보고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이미 정해진 보고체계내지 소통 경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기관리의 성패는 초동대응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부와 필드 사이에 시차가 있을지라도, 24시간 보고체계가 운영되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위기관리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인 위기에방조치이다. 훈련이나 워크숍을 통해 훈련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심각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4) 위기관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위기상황은 급박한 정황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즉시 인출과 지출이 가능한 특별항목의 유동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본부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교현장의 지역선교부나 지부, 나아가 각 선교사들도 위기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5) 긴급철수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필드에서 사전계획과 정리과정 없이 급박하게 철수해야 하는 긴박한 철수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심각한 전염병 창궐, 내전 혹은 전쟁, 무정부상태, 치안부재 상황, 입국거부나 추방 등, 긴급 사안이 발생할 때 단행된다. 지침서에는 철수 원칙과 철수 결정권자, 구체적인 실

8) 감염병 초기단계가 발생할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인포데믹(Infodemic,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으로부터 불확실성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야한다.

행방안, 그리고 이양계획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2. 회복프로그램 실시

위기를 겪은 후에는 모두가 스트레스 심리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디브리핑이나 상담 등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건강염려 뿐만 아니라 외로움, 고립감, 무력감, 불안, 우울, 공황, 신체질환 증상, 정신질환의 악화 등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 감염이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는 선교사들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교육이 필요하고, 고립된 국민들을 위해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방식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감염병이 종식되어가는 시기에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감염병 재난으로 야기되는 심리사회적 피해의 예방이 중요하다. 재난 이후 허탈함, 억울함 등과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사회분열 및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불안, 공포, 낙인과 차별은 감염병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 회복의 이면에 남아있는 경제, 보상, 정신건강, 신뢰회복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병 재난은 종식 후에도 개인과 사회가 감염병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사회적 반응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이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사들의 심신의 건강은 선교사의 건강성과 비례를 한다. 이에 본부는 위로회나 디브리핑 등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3. 사역적 대안준비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지구촌은 상당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 간의 장벽강화, 작은 집단과 개인역량 강화, 자본주의와 경제변화, 교회의 침체는 선교사 동원과 사역지원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사역의 제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미래에도 생산적인 선교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평가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인 제자삼기와 인재양성, 선교개척 등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향후 선교지를 이탈했을 때를 대비하여 선교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사역들에 대한 리더십 이양에 대한 플랜 등을 세워가야 한다.

1) 비대면(untact)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언택트(untact)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을 했다. 언택트가 기존 서비스와 산업체계를 흔들고 있다. 교육분야도 온라인개학으로, 산업분야도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의존도가 급증 했다. 스포츠 역시 관중 없는 경기를 치르면서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새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가수들이나 연극 등의 공연도 관중 없이 화상으로 공연하고 관람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교회와 선교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다. 선교사

역이나 교회사역들도 비대면속에서의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준비해 가야 한다. 영상이나, SNS, 유튜브 등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온택트(ontact) 기술이 사역의 도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현장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사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선교사역에 있어서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을 갖추는 균형 있는 사역을 위해 개인중심사역을 탈피하고 함께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인 세계선교를 이루어 가야 한다.

2) 본질성(originality)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관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본질을 말한다. GMS 선교개발 연구원장 김철수 선교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역들이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위기로 보기 보다는 돌아봄의 계기와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선교의 기회로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코로나로 사람간의 언택트(untact)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과는 컨택트(contact)하는 일을 더욱 추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회복하고 성경과 하나님나라를 위한 개혁주의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리더십 역량을 더 요구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리더십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세상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지역보다 사람, 사역 프로젝트보다 제자삼기, 직분보다 기능적인 일에 더 영향을 끼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

3) 전문성(professionalism)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선교현장에서 영향력있는 선교사들이나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는 교회사역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감당하는 공교회성이 강조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반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과 헌신을 해야 한다. 선교현장에서 일방적인 전달방식을 지양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관계성을 회복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 나가야 한다. 또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영적인 고립이나 절망 상태로부터의 탈피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읽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및 가성비 등을 극대화 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프로선교사들의 몫이다.

9) 공교회성이란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4) 네트워크(Network)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빠른 변화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새로운 선교사역을 수행할까를 고민하고, 우리의 모든 조직과 역량들이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21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어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교단을 네트워크하고, 선교지역의 정보와 선교사들의 사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세계 선교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네트워크 하여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교단이나 교회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대계명과 대위임령의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화를 해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연합사역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발생할 새로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위기관리 체계를 ‘교단/산하기관/교회’에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동일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감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신시대(New normal)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세계선교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전략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방안을 세워야 한다. 우선은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손실과 위험성 속에서 나타난 많은 부정적인 영향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미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소망도 가져야 한다.¹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완수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르심의 과제는 비대면의 세상에서 모두가 단절되어 가는 지

10) 코로나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미래학자들은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 증가, 온라인교육확대, 의료분야 공중보건개선,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 절감 등이다.

금 이 순간에도 감당해야 할 동일한 과제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들은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더 위대한 기회로 삼아가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능력의 선을 넘는 재난과 위기 앞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위대한 기회의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미디어 숲, 2020
유엔미래보고서 2050, 박영숙 외, 교보문고, 2016.
트랜드 코리아 2020, 김난도 외, 미래의 창, 2019
선교사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한국위기관리 재단 편, 2016.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외 17명, 도서출판 다함, 2020.
코로나19의 도전과 선교의 본질, 김철수, GMS 전략포럼, 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대토론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2020.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존 알렌 외9명, 2020.